

이번 국회 회기 내 아동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국만화연합 성명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조항은 2011년 9월 15일 개정 이래 법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위 조항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그런 기록이 해당 아동에게 주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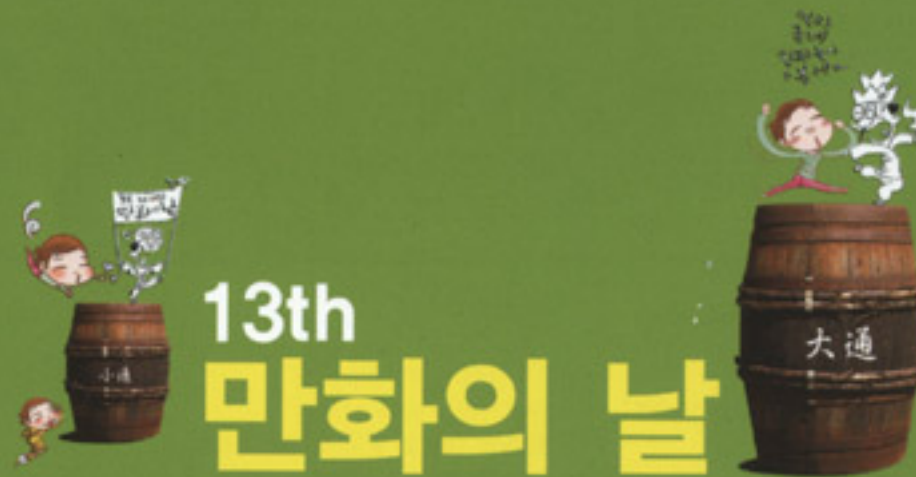
하지만 문제는 이 아청법의 적용 범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이 지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말 그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제작한 음란물에 한정해야 함에도, 가상 세계의 표현에까지 같은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가상 표현을 세상에 내놓는 창작자에게까지 범죄 혐의를 들이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우리 만화계는 모호한 법의 테두리가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 발효에 따른 만화 탄압 사태와 1998년 이후 6년을 끌었던 <천국의 신화>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 시비는 무죄였고, 그 근거조항이었던 미성년자보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우리 만화계는 작금의 아청법 사태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회도 이러한 맹점을 분명하게 인정해 지난 2012년 12월 18일 '대상'을 정의하는 제2조 제5호 내용을 일부 수정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덧붙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만으로 법의 모호성과 과잉성이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말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 만화계 또한 법의 본래 목적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가상 세계 속 표현 일체를, 모호한 기준으로 단속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단하려 든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만화계는 현행 아청법이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 의 소지를 없앤 개정안(의안번호 1903875 / 최민희 의원 등 11인)을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1. 3
한국만화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조관제
우리만화연대 회장 차성진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회장 최재봉
한국카툰협회 회장 신명환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회장 권영섭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회장 김기혜



주최 :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COCO 한국카툰협회,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주관 : 모든 만화인, 만화의 날 실행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SBA, Fantasia,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협찬 : NAVER 문화재단

13th 만화의 날

일시 : 2013년 11월 3일 17:00
장소 :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만화의날이란?

만화의 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청소년 보호법)을 시작으로 만화계에 불어 닥쳤던 심의와 제재 바람에 맞서, 1996년 11월3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만화심의 철폐를 위한 범만화인 결의대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당한 탄압과 그릇된 시각에 맞서 만화인들 스스로 행동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후, 만화계의 자체적인 행사로 기념일을 챙겨오다 2001년에 정부의 공인을 받게 되었고, 올해로써 열 세 번 째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날은 만화인 모두가 한데 어울려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만화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만화의날 행사일정표

기념행사 1부 : 저작권 보호 컨퍼런스	Session 1 - 13:30~13:50	만화 저작권 보호 관련 침해 현황 및 법적 쟁점	이영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Session 2 - 13:50~14:10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 상식	정진근 교수 (강원대 로스쿨)
	Session 3 - 14:10~14:30	만화작가가 직접 말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	만화가 정철
	질의 응답 - 14:30~14:40	질의응답	사회 : 이종범 작가
	스마트워크 협업 시스템 설명회 - 14:40~14:50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창작 협업시스템 설명회	한국만화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대진
기념행사 2부 : 만화퀴즈왕	주제1 - 14:55~15:40	토크 & 퀴즈쇼	사회 : 이종범 윤태호, 임재경, 이종규 정필원, 김인정, 연세원
	주제 2 - 15:45~16:30	2013 만화계 한 해의 이슈 - 만화가협회 분과 시스템, 웹툰의 수익화 모델, 키워툰 사건	
	예술인복지에 관한 설명회 - 16:35~16:45	예술인 복지에 관한 설명회 - 의료보험, 법률자문, 긴급구조 등	
기념식	개식 및 국민의례 - 17:00~17:05	주요 내빈소개	
	개회사 - 17:05~17:08	개회사	
	축사 - 17:08~17:15	축사 1, 2	
	시상식 - 17:15~17:25	오늘의 우리 만화 수상자 시상 / 공로상 시상 / 네이버 감사패 수여 /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한국만화연합 추진경과 및 사업계획 - 17:25~17:35	한국만화연합 추진경과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보고	사회자 : 김형규, 정효진
	아청법 개정 촉구 선언문 발표 - 17:40~17:45	아청법 개정촉구에 대한 선언문 발표	
	소통과 화합의 퍼포먼스 - 17:25~17:35	만화인 세대간 소통과 화합의 세레머니	
	축하공연 - 17:40~17:45	축하공연	
	폐회 - 17:50~17:51	사회자 폐회 및 리셉션 안내	
	리셉션	축하리셉션 - 18:30~21:30	여흥공연, 레크리에이션, 만찬, 경품 추첨

한국만화연합 소개

만화계는 여러 단체들이 각자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며 현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대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2012년 만화진흥법의 제정, 2013년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만화' 포함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만화계 공동의 대응, 만화계 안팎의 여러 문제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만화진흥법을 추진했던 만화진흥법추진위원회(이하 만추위)와 만화단체 실무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연합체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만화단체 (한국만화가 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 협회, 젊은작가모임, 한국교육만화작가모임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 연합의 <한국만화연합>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만화연합>은 결코 새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회원 단체 위에 군림하는 상위 단체도 아닙니다.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만화계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주요 행사나 공동 현안을 추진하는 협력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만화연합>은 만화인의 대의기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만화인의 권익과 만화에 대한 정책을 연구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과

- 2011년 12월 : 만화진흥법 통과로 만화계는 새로운 변화가 안팎에서 요구됨
- 2012년 1월 : 만화인간단체들의 정부정책, 사업 집행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 제기됨
- 2012년 2월 : 만화단체 회장단 모임 단일화 된 단체의 필요성이 거론됨
- 2012년 4월 : (가칭)한국만화연합의 정관 초안 및 통합기구 로드맵 설정
- 2012년 5월 : 만추위 및 확대회의에서 정관 검토 및 (가칭)한국만화연합의 목적 논의
- 2012년 6월 : 만화계 전, 현직 회장단 및 중진작가 의견 수렴
- 2012년 7월 : (가칭)한국만화연합설립 및 추진 과정에 대한 1차 보고회
- 2012년 8월 : 1차 발기인 4개 단체 발족 협약식(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카툰협회)
- 2012년 10월 : (가칭)한국만화연합의 임시 이사회 개최
- 2012년 11월 : 만화의 날 발족식 거행(만화가협회 조관제 회장 연합 회장 겸임함)
- 2013년 4월 : 만화연합 초대 사무국장 양동석 / 기획팀장 박영준 임명
- 2013년 5월~9월 : 매월 만화연합이사회 개최
- 2013년 9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만화연합 사무실 개소
- 2013년 10월 : 광성진 2대 사무국장 선임